

# 캠프 떠나는 나성범 “WBC 잘 하고 오겠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KIA 유니폼 입고 첫 해외 훈련  
“국가대표만큼 팀 성적도 중요  
올 시즌 우승 꿈 달성하고 싶다”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태극마크를 빛내기 위해 또 다른 여정에 오른다.

KIA 나성범은 오는 3월 8일 개막하는 2023 WBC에서 양현종, 이의리 등과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뛴다. 지난 1일부터(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전지훈련을 하였던 나성범은 14일 KIA 캠프 마지막 훈련을 소화한 뒤 짐을 꾸려서 대표팀 숙소로 이동한다.

대표팀도 같은 곳에서 훈련을 진행하지만 잠시 KIA 이름을 내려놓고 떠나는 만큼 나성범은 ‘아쉬움’을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KIA 유니폼을 입고 해외 스프링 캠프에 왔다. 마지막 오기나 캠프까지 같이 했어도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대표로 호출 받았기 때문에 기분은 좋다”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축하해주고 잘하고 오라고 이야기해줬다. 다치지 않고 잘 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대표팀의 시기에 맞춰 나성범은 조금 빠르게 시즌 준비를 해왔다. 변화는 있지만 ‘하던 대로’ 대회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나성범은 “준비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원래 보다 당겨졌다. 예전 같으면 좀 더 훈련량을 늘려야 했을 것이다. 방망이도 더 무겁게 해서 시범경기 전까지 치는데, 이번에는 원래 쓰던 무게로 준비하고 있다. 실전 가깝게 시합하면서 빨리 감각을 찾아야 될 것 같다”며 “프로에 와서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즌 전에 대표팀 차출도 처음이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상황에 맞춰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국가대표 나성범도 특별하지만 올 시즌 KIA의 나성범으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지난해 좋은 감을 살려 ‘타이를 홀더’ 꿈을 이루고,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

나성범은 “국가대표만큼이나 팀이 중요하다.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좋은 성적을 냈다. 그래도 만족하면 안 된다”며 “(타이를)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막상 시즌 들어가고 좋은 페이스 유지하면 욕심이 난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안 됐던 것 같다. 항상 자제하자고 다짐하는 데도 막상 상황이 되고 그 시기가 오면 또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앞선다.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나가기 내가 더 조금해줬다. 올 시즌에는 그럴 때마다 생각을 고쳐 먹고 타이틀에 도전하겠다”고 목표를 이야기했다.

KIA에서 첫 가을 잔치의 악몽은 지우고 싶다. 나성범은 지난 가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쉬운 실책을 기록했다.

나성범은 “소리 지를 수만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시즌에 잘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가 나오니 미안하고 아쉬웠다”며 “내가 있는 동안 우승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우승의 꿈을 이야기했다.

꿈을 향해 달리는 나성범은 올 시즌에도 ‘간절함’으로 그라운드를 누빌 생각이다.

지난 시즌 나성범은 팀에서 유일하게 144경기 전 경기를 소화했다. 리그 전체로도 KT 배정대, LG 박해민, SSG 최치훈, 한화 테크맨만 144경기를 뛰었다. 나성범은 NC 시절이던 2015·2016·2018·2021년에도 144경기를 모두 채웠다. 부상 없이 성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미국 애리조나 투싼 전지훈련 캠프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적이 뒷받침 돼야 이룰 수 있는 144경기. 나성범은 “전경기 뛴다고 해도 상 같은 건 없지만 이상하게 뿌듯하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어갈수록 뛰는 게 행복하다. 나중에는 뛰고 싶어도 못 뛴 수 있다. 뛴 수 있을 때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 사막에 내린 비 ...호랑이들 페이스 조절

사막에 비가 내리면서 ‘호랑이 군단’이 숨을 골랐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가 꾸러진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13일(현지시간) 비가 내렸다. 이른 오전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린데다 최고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이날 KIA는 강행군 대신 페이스 조절에 나섰다.

실내 연습장이 준비되지 않은 만큼 KIA는 오전 웨이트를 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날에는 휴식일이었던 만큼 선수들 입장에서 이를 연속 훈련을 쉬어간 셈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KIA는 14일 캠프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된다. 지난 10일 손 앤더슨, 아도니스 메디나 ‘외국인 듀오’와 김기훈, 윤영철 ‘두 좌완 선발 후보’가 라이브 피칭의 문을 열었고, 두 번째 라이브 피칭에는 8명의 투수가 마운드에서 컨디션을 점검한다.

김기훈이 다시 한번 타자들을 상대로 공을 던지고, 유승철, 이태규, 김유신도 메인 구장에서

첫 라이브 피칭에 나선다. 보조구장에서는 ‘투키’ 윤영철이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고 송후섭, 김승현, 윤중현도 30구를 던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불펜도 불펜피칭을 하는 선수들로 부지런히 돌아간다.

특히 이날 훈련을 끝으로 WBC 대표팀으로 이동하게 되는 ‘신구에이스’ 양현종과 이의리도 불펜 피칭을 한다.

두 국가대표와 앤더슨과 메디나 그리고 임기영까지 나란히 불펜에 자리하면서 KIA의 선발전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에는 비예보가 없는 만큼 예정된 스케줄 소화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캠프의 변수다.

비가 다녀간 뒤 투싼에는 쌀쌀한 날씨에 예보됐다. 14일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10도에 그칠 전망이다. 15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13도에 머무르는 등 추위가 찾아오면서 캠프에는 ‘부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wool@kwangju.co.kr



## 사우디 오일머니 이번엔 여자골프 ‘유혹’

전인지

아랍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  
총상금 500만 달러로 늘려  
한국 전인지·유해란 등 출격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가 막대한 오일머니에 힘입어 상위 랭커들과 한국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였다.

LET는 16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암라라 경제도시의 로열 그린스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295야드)에서 아랍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총상금 500만달러)을 개최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이

대회의 올해 총상금은 작년(100만달러)보다 무려 5배 늘어난 500만달러(약 64억원)다. 우승자는 75만달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에 포함됐다.

애초 엔트리 120명 중 50명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상위 300위 이내 선수들로 구성됐다. 나머지 60명은 LET 소속이며 나머지 10명은 초청 선수다.

LPGA 투어 소속 한국 선수로는 전인지(세계 8위), 김효주(9위), 김아람(48위), 유해란(52위), 지은희(54위), 신지은(98위)이 출격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으로는 이정은(38위), 이소미(43위), 임희정(57위), 홍정민(76위), 정윤지(77위), 임진희(93위), 송가은(107위), 조아연(111위), 성유진(119위), 하민

송(134위), 황정미(138위)가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상위 랭커로는 세계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올해 첫 대회에 나선다.

작년 12월 결혼한 리디아 고는 그동안 신혼여행과 겨울 훈련 등으로 한 달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리디아 고는 2020년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다.

세계 7위 렉시 토포슨(미국), 10위 하타오카 나사(일본), 14위 린시위(중국), 17위 다니엘 강(미국), 19위 해나 그린(호주) 등도 나온다.

LPGA 투어는 오는 23일까지 한 달간의 휴식이 있고 KLPGA 투어는 4월 개막인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은 실력을 가능하고 점검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주FC, 호남대 출신 미드필더 이강현 영입

광주FC가 호남대 출신의 미드필더 이강현(24·사진)을 영입해 중원을 보강했다.

광주는 14일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한 ‘하드위커’ 이강현을 영입했다.

181cm·77kg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춘 이강현은 볼 배급과 능동적인 패스, 빌드업이 강점으로 꼽힌다.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하드위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이강현은 호남대를 거쳐 2020년 K3리그 부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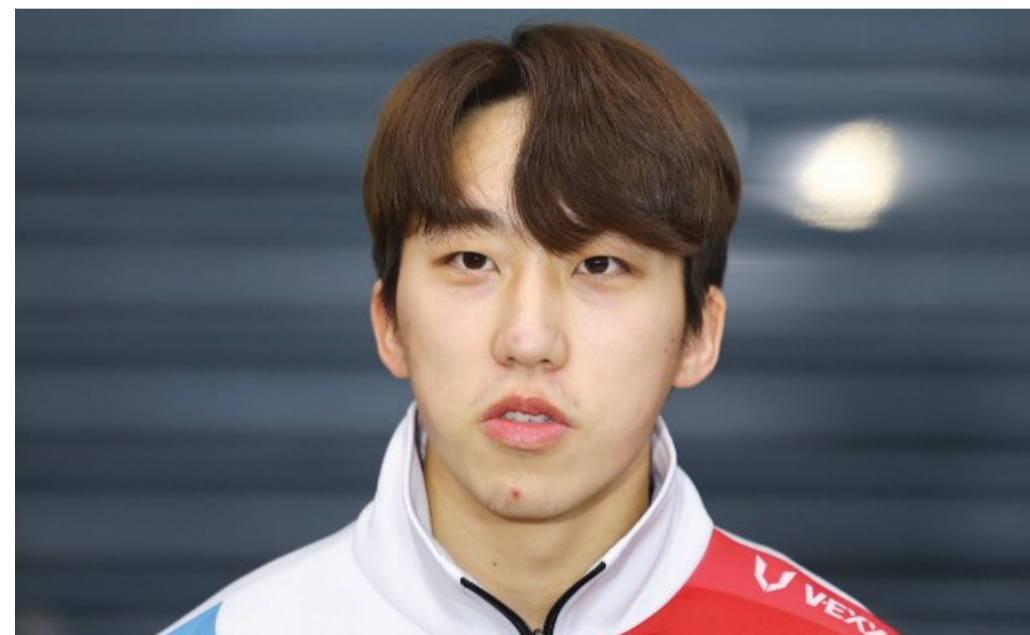
통공사 축구단에 입단, 성실하고 헌신적인 플레이로 주전 자리를 꿰차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2021시즌 인천에서 프로 데뷔 꿈을 이룬 뒤 중앙과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을 오가며 맹활약을 했다. 지난해에는 시즌 막판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는 등 팀의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공을 세우며 큰 주목을 받았다.

K리그 통산 38경기에 나온 그는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강현은 “호남대 재학 시절 광주의 축구를 자주 찾아보며 프로 생활을 꿈꿨다. 광주에 다시 돌아와 싶다고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며 “광주로의 이적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싶다. 끈끈한 조직력과 팀워크를 가진 팀에 합류한 만큼 빨리 녹아들어서 팀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박지원. /연합뉴스

## 쇼트트랙 박지원, 초대 ‘크리스털 글로브’

월드컵 남자부 종합 랭킹 1위  
1~5차 대회서 금 14·은 4개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부 종합 랭킹 1위로 우뚝 선 박지원은 27·서울시청)이 ‘금의환향’했다.

2022-2023 ISU 월드컵 6차 대회를 마친 박지원은 등 10명의 쇼트트랙 대표팀은 14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지원은 이번 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랭킹 총

점 1068점으로 2위 홍경환(674점·고양시청), 3위 스티븐 뉘부아(668점·캐나다)를 큰 차이로 제치며 남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 시리즈에서만 14개의 금메달, 4개의 은메달을 목에 건 그는 ISU가 월드컵 창설 25주년을 맞아 남자부 종합 1위에게 수여한 특별 트로피 ‘크리스털 글로브’의 초대 수상자가 됐다.

입국장으로 들어선 박지원은 “ISU에서 멋있고 아름다운 트로피를 만들어주셨다. 첫 트로피의 주인공이 돼 정말 기쁘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